

사무엘상 17.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 (삼상 15 장 1-35 절)

들어가기

사무엘상 15 장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자신의 왕좌를 지속적으로 빛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감정과 재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합리화를 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였고, 더 이상 자신도 왕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사울은 형식적인 회개를 하며 사무엘을 붙들었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백성들에게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1.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9 절)

1)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 절)

✧ 그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이유는 무엇일까?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울에게 부여하셨기 때문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3 절)

✧ 아말렉 족속을 쳐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 시킬 것!

- ‘아말’은 에서의 손자였고, 아말렉은 그 자손들!
- 그런데 ‘진멸’이란 말은 히브리어 ‘케땡’ 이란 말로 ‘파괴로 봉헌된다’ 라는 뜻!
- 곧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의 삶 속에서 파괴하고 진멸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스스로 파괴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3)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가?

✧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당시 이스라엘을 막고 괴롭혔기 때문! (출 17:8-16)

✧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시겠다고 경고하셨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출 17:14)

■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 ✧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교만한 반항으로 보셨다는 사실!
- ✧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사실!
- ✧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엄하고 무섭다는 사실!

4) 아말렉을 치기 위해 모인 사울의 병사는 보병 20 만명과 유다 사람 1 만명이었습니다. (4 절)

■ 주목: 맨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을 따랐던 군대는 고작 600 명에 불과!

- ✧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5)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기 전 그 지경에 살고 있던 겐 사람들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6 절)

■ 그 이유는?

- ✧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저들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행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었기 때문.
- ✧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예비해 주신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6)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공격해 진멸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7-8 절)

✚ **생각하기 1. 그런데 혹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갑작스럽게 아멜렉을 쳐 진멸시키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이 사건을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고 선포하기 위한 헌신적인 순종의 행동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

7)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행한 잘못은 무엇인가? (9 절)

- ✧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시키고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은 따로 남겨 두었다는 것!
- ✧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였다는 사실..

2.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14 절)

1) 먼저 11 절에서의 ‘후회’란 말은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

-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도 불완전한 것이 있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일까?
 - ✧ 아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표현으로 슬퍼하셨다는 의미!
 - ✧ 나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허락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
 - ✧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하나,
 - 종종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문제 등등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출발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주의해야만 할 것

2)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 사울에게 추가되는 두 가지 잘못
 - ✧ 갈멜산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움
 -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단순히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교만한 행위!
 -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 ✧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고 선포!
 -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행함을 과장하여 선전하고 나타냄. 그러나 실상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3.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14-21 절)

1) 사무엘의 책망을 받은 사울은 그저 핑계거리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 사울의 변명 1.

15 절 주석,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 ✧ 자기 합리화를 위해 백성들을 끌어들임.
 - ✧ 거룩한 제사와 관련시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 시키려 함
 - ✧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진심으로 섬기려 하지 않았음.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상할 수 있는 사울의 어리석은 신앙관 하나!
 - ✧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한 제물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 ✧ 하나님은 하루 하루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

2) 변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가만히 있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16 절)

- ✧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그만 두라’는 뜻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는 사무엘의 책망의 말!
- ✧ 참고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듣기 싫다’ 로 번역.

3)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7 절)

- ✧ 죄인 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는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을 것!

4) 그러면서 사무엘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냐며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19 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 사울의 변명 2.

- ①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주장! (20 절)
 - 곧 자신은 사무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
- ②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다’ 고 주장

결국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사무엘의 책망은 옳지 않은 것이고,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요, 실수가 있다 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주장하며 끝까지 완고함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명은 결국 그가 평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지 않았는지? 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는지? 를 잘 보여 주는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종종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ex. 자기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는 사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외..)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고, 혹시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 받게 될 때는, 그 즉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4.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선포 하였습니다. (22-23 절)

1) 22-23 절의 사무엘의 책망을 주목!

-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제물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보다 낫다!

- ✧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행위! 라는 사실!
 - 이는 점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와 다를 것이 없는 범죄!
 -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요, 불신앙자와 같다는 것!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예배자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가르치며,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지를 살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롬 12 장 1-21 절)

2)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
- ✧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를 선택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버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음!
- ✧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인정하며 따라 사는 사람들의 나라! 됨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5.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24-28 절)

1) 그럼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을까?

- ✧ 아니었다! 그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 회개였다는 것!
- ✧ 그저 사울은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저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고백!
- ✧ 만약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 곧 그의 고백은 그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넘어가보려는 간사한 입의 고백에 불과했다는 것!

2) 사울은 진실된 회개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길갈로 가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부탁하였습니다.

- ✧ 그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없이 승전에 대한 기념제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

3)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 ✧ 이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따르는 사무엘의 자세라 볼 수 있음
- ✧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선지자였음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음!

4) 사울은 자신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며 돌아가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간청했습니다.

- ✧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을 때, 그 옷이 찢어진 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분리시키실 것을 상징하는 표징이라 추측. 왜냐하면 이 사건 후 바로 사무엘은 확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사울에게서 분리될 것을 사울 왕에게 선포했기 때문!
 - 이후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 내게 되었고, 사울은 이를 보며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 고 다윗에게 고백하였음. (삼상 24 장)

6.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강조해 가르친 후에 사울의 간청대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승전제를 인도하며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였습니다. (29-35 절)

- 1) 그럼 사무엘이 강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 ✧ '이스라엘의 지존자' =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
 - ✧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 -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 결코 정하신 뜻을 바꾸시지 않는 분
- 2)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백성들과 장로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 ✧ 이런 사무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백성과 장로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승전제 만을 걱정하며 사무엘에게 부탁하였다는 것
- 3) 결국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길갈로 나아가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였습니다.
 - ✧ 이는 사무엘이 사울의 간청에 타협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무리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 길갈로 간 것!
- 4)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으나 그를 생각하며 슬퍼하였습니다. (34-35 절)
 - ✧ 사무엘이 사울을 끝까지 보지 않고 슬퍼한 이유는?
 -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임을 알기에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슬퍼했다는 것!
 - 우리도 우선은 악한 죄인은 멀리해야 할 것!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며 슬퍼할 줄은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 생각하기: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내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내용이 있다면?